
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배포일자	2021년 9월 1일(수) 총 4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매개체감염병과장 • 담당자	장진섭 ☎440-5441 이원식 ☎440-5446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가을철 야외활동 시 ‘진드기 매개감염병’ 주의 당부
-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올해 감시사업결과 잡목림에서 가장 많은 야생진드기가 발견됨에 따라 가을철 야외활동 중 잡목림 출입 시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.

야생진드기에 의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*(이하 SFTS)은 매년 4월 ~ 11월에 발생하며, 특히 7월 ~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.

*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,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) :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물린 후 1~2주 이내에 고열, 오한, 두통, 구토, 설사,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대와 공동으로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매개체 전파 질환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「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」의 수도권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, 매개체 전파 질환의 모니터링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참진드기를 채집해 SFTS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한다.

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채집된 1,604마리의 야생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며, 채집환경별로는 잡목림에서 가장 많은 527마리(32.9%), 초지 414마리(25.8%), 무덤 371마리(23.1%), 산길 292마리(18.2%) 순으로 채집됐다.

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SFTS 전국 환자 수는 78명('21. 8. 30. 현재)이고 인천 내 발생환자는 없었으나,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자 수는 232명에 이르고 이중 39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16.8%에 달했다.

더불어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및 서구 경제정책과와 협업체 야생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진드기 종 분류와 SFTS 바이러스 검사를 9월 한 달간 실시할 예정이다.

권문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별초, 성묘, 등산 등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감염병 예방의 최선은 「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」 등의 예방수칙 지키기” 입을 강조하고, “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채집 환경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, 유기동물 등 다각적인 감염병 감시 강화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붙임 1> 관련사진

<붙임 2> 참고자료 (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)

[붙임 1] 작은소피참진드기 성충



작은소피참진드기 *Haemaphysalis longicornis*



성충 암컷
Adult female



성충 수컷
Adult male



약충
Nymph



유충
Larva

1mm

출처 : 질병관리청

[붙임 2]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

<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>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전

-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분하여 입기
-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
- 진드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

○ 작업 및 야외(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)활동 시

-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
- 돛자리를 펴서 앉고, 사용한 돛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
-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
-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
-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

○ 작업 및 야외활동 후

- 옷을 털고, 반드시 세탁하기
- 즉시 목욕하고, 옷 갈아입기
- 머리카락, 귀 주변, 팔 아래, 허리, 무릎 뒤,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
-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
- 2주 이내에 고열, 오심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 있을 경우 진료받기

[출처 : 질병관리청]